

# 언어영역

1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 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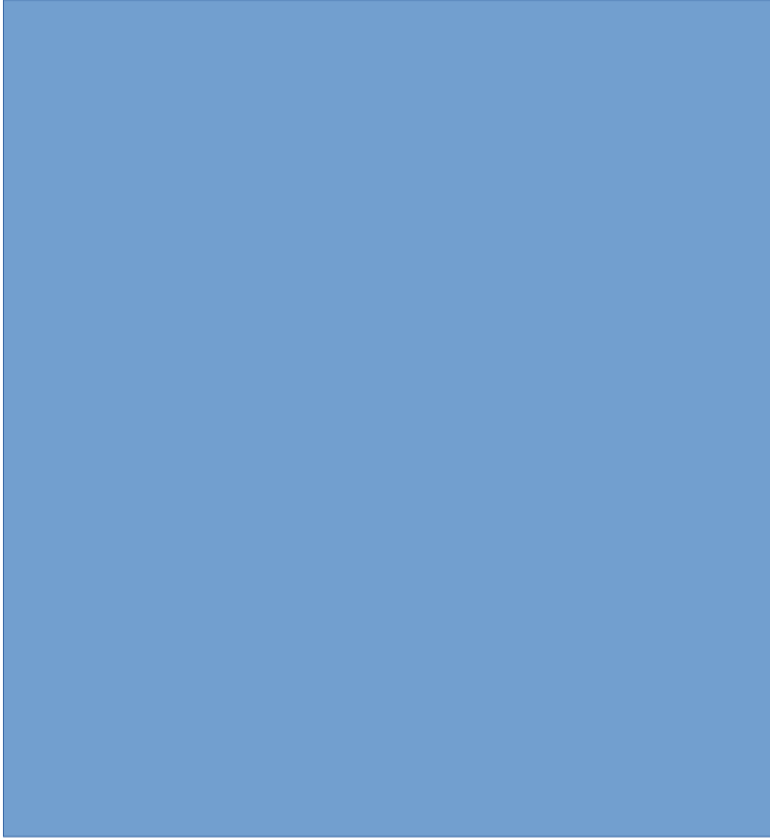


[5~6] 들려주는 내용을 잘 듣고, 5 번과 6 번의 두 물음에 답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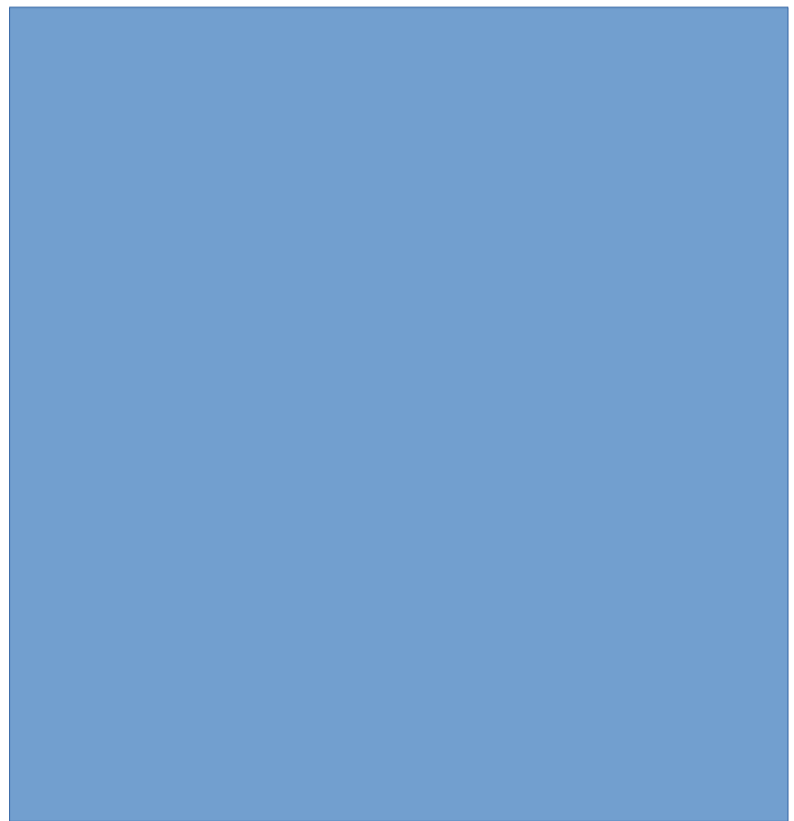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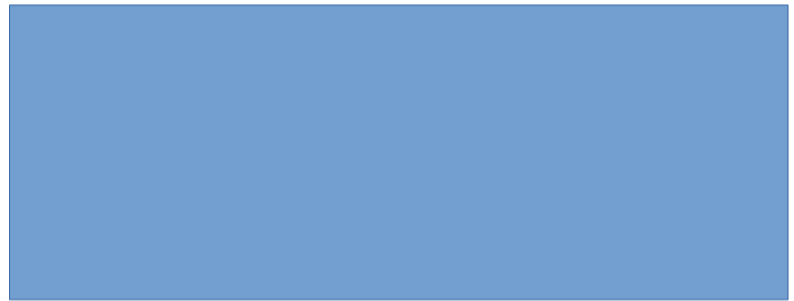


# 언어영역

은?



찾은?



문제 해결 방안  
[A]

# 언어영역



# 언어영역



안녕하세요? 저는 3학년 7반 김아름입니다. 교장 선생님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장 선생님께서는 현대는 지식 정보화 시대이니 만큼 지식과 정보를 찾아서 활용하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늘 강조하셨습니다.

학교 도서관은 저희들이 스스로 지식과 정보를 찾고 활용할 수 있는 매우 소중한 공간입니다. 그런데 학교 도서관 개방 시간이 학교 일과 시간 중으로 제한되어 있어 이용하는 데 불편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실제로 여유 있게 자료를 찾을 수 있는 시간은 방과 후인 경우가 많습니다. 학생들이 도서관을 지저분하게 이용하는 태도에도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점은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학교 행정적인 측면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저희들의 지적·정신적 성장을 위하여 최대한 긍정적으로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람들이 모두 저 차에 오르는 것을 보았을 때, 그는 저 혼자 그곳에 남아 있는 것에 외로움과 애달픔을 맞본다.

### <중략>

구보는 고독을 느끼고, 사람들 있는 곳으로, 약동하는 무리들이 있는 곳으로, 가고 싶다 생각한다. 그는 눈앞에 경성역을 본다. 그곳에는 마땅히 인생이 있을 게다. 이 낯은 서울의 호흡과 또 감정이 있을 게다. 도회의 소설가는 모름지기 이 도회의 향구와 친하여야 한다. 그러나 물론 그러한 직업 의식은 어떻든 좋았다. 다만 구보는 고독을 삼등 대합실 군중 속에 피할 수 있으면 그만이다. 그러나 오히려 고독은 그곳에 있었다. 구보가 한 옆에 끼여 앉을 수도 없게서리 사람들은 그곳에 뻑뻑하게 모여 있어도, 그들의 누구에게서도 인간 본연의 온정을 찾을 수는 없었다. 그네들은 거의

○ 피의자는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고 검사에게 (□)했다.

[15~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구보는, 약간 자신이 있는 듯싶은 걸음걸이로 전차 선로를 두 번 횡단하여 화신상회 앞으로 간다. 그리고 저도 모를 사이에 그의 발은 백화점 안으로 들어서기조차 하였다. 젊은 내외가, 너댓 살 되어 보이는 아이를 데리고 그곳에 가 승강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그들은 식당으로 가서 그들의 오찬을 즐길 것이다. 흘끗 구보를 본 그들 내외의 눈에는 자기네들의 행복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엿보였는지도 모른다. 구보는, 그들을 업신여겨 볼까 하다가, 문득 생각을 고쳐, 그들을 축복하여 주려 하였다. 사실, 4, 5년 이상을 같이 살아왔으면서도, 오히려 새로운 기쁨을 가져 이렇게 거리로 나온 젊은 부부는 구보에게 좀 다른 의미로서의 부러움을 느끼게 하였는지도 모른다. 그들은 분명히 가정을 가졌고,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당연히 그들의 행복을 찾을 게다.

승강기가 내려와 서고, 문이 열려지고, 닫혀지고, 그리고 젊은 내외는 수남이나 복동이나 더불어 구보의 시야를 벗어났다.

# 언어영역

5

옆의 사람에게 한마디 말을 건네는 일도 없이, 오직 자기네들 사무에 바빴고, 그리고 간혹 말을 건네도, 그것은 자기네가 타고 갈 열차의 시각이나 그러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그네들의 동료가 아닌 사람에게 그네들은 변소에 다녀올 동안의 그네들 짐을 부탁하는 일조차 없었다. 남을 결코 믿지 않는 그네들의 눈은 보기에 딱하고 또 가엾었다.

구보는 한구석에 가 서서 그의 앞에 앉아 있는 노파를 본다. 그는 뉘 집에 드난을 살다가 이제 늙고 또 쇠잔한 몸을 이끌어 결코 넉넉하지 못한 어느 시골, 딸네 집이라도 찾아가는지 모른다. 이미 굳어 버린 그의 안면 근육은 어떠한 다행한 일에도 퍼질 틈 없고, 그리고 그의 몽롱한 두 눈은 비록 그의 딸의 그지없는 효양(?)을 가지고도 감동시킬 수 없을지 모른다. 노파 옆에 앉은 중년의 시골 신사는 그의 시골서 조그만 백화점을 경영하고 있을 게다. 그의 점포에는 마땅히 주단포복도 있고, 일용 잡화도 있고, 또 흔히 쓰이는 약품도 갖추어 있을 게다. 그는 이제 그의 옆에 놓인 물품을 들고 자랑스러이 차에 오를 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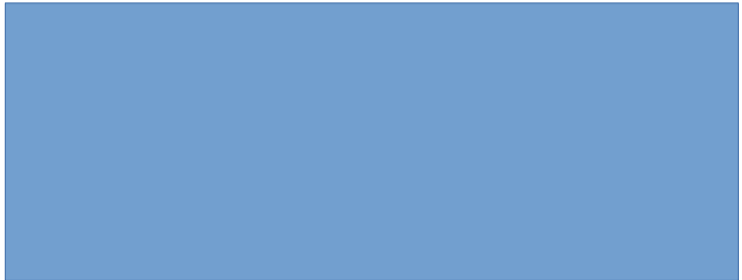
구보는 그 시골 신사가 노파와의 사이에 되도록 간격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를 업신여겼다. 만약 그에게 얇은 지혜와 또 약간의 용기를 주면 그는 삼등 승차권을 주머니 속에 간수하고 일, 이등 대합실에 오만하게 자리잡고 앉을 게다.

문득 구보는 그의 얼굴에서 부종(?)을 발견하고 그의 앞을 떠났다. 신장염. 그뿐 아니라, 구보는 자기 자신의 만성 위확장을 새삼스러이 생각해 내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구보가 매점 옆에까지 갔었을 때, 그는 그곳에서도 역시 병자를 보지 않으면 안 되었다. 40 여 세의 노동자. 전경부(?)의 광범한 팽릉(?). 돌출한 안구. 또 손의 경미한 진동. 분명한 '바세도우씨'병. 그것은 누구에게든 결코 깨끗한 느낌을 주지는 못한다. 그의 좌우에는 좌석이 비어 있어도 사람들은 그곳에 앉으려 들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그에게서 두 칸통 떨어진 곳에 있던 아이 엷은 젊은 아낙네가 그의 바스켓 속에서 꺼내다 잘못하여 시멘트 바닥에 떨어뜨린 한 개의 복숭아가, 굴러 병자의 발 앞에까지 왔을 때, 여인은 그것을 쫓아와 집기를 단념하기조차 하였다.

구보는 이 조그만 사건에 문득, 흥미를 느끼고, 그리고 그의 □ '대학노트'를 펴 들었다. 그러나 그가, 문 옆에 기대어 섰는 캡 쓰고 린네르 즈메에리 양복 입은 사나이의, 그 온갖 사람에게 의혹을 갖는 어느 처진 발길에 채이고 밝히 / 몸이 으스스러지고 두 도막에 잘려도 / 붉은 피 흘리며 흘리며 나는야 / 아프고 저런 가슴을 뒤틀며 사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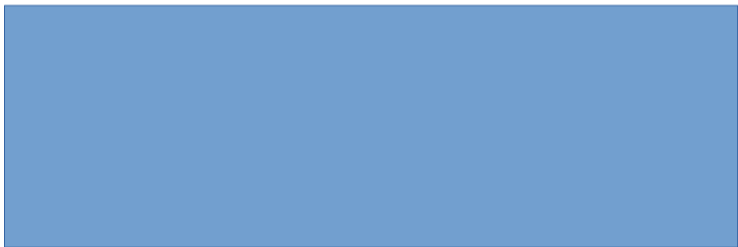
- 박태원,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 -



자란 □한 등불이 하나 비인 하늘에 걸리어 있다.

아프고 저런 가슴을 뒤틀며 사노라

# 언어영역



[20~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일본의 한 완구 회사가 개발한 '바우링걸'은 개 짖는 소리를 인간의 언어로 번역하는 기계이다. 이런 기계를 제작하려면 동물들이 어떻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이에 관한 연구는 동물행동학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이다. 동물행동학 학자들은 동일한 상황에서 일관되게 반복되는 동물의 행동을 관찰한 경우, 일단 그것을 동물의 의사 표현으로 본다. 물론 그 구체적인 의미를 알아내는 것은 상황을 다양하게 변화시켜 가며 반복 관찰하고 그 결과를 분석한 후에야 가능하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먼저 동물들이 어떻게 의사를 표현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그렇다면 동물들은 어떤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할까?

먼저 시각적인 방법부터 살펴보자. ㉠ 남미의 열대 정글에 서식하는 베짚이는 우리나라의 베짚이와는 달리 머리에 뿔도 나 있고 다리에 무척 날카롭고 큰 가시도 있다. 그리고 포식자가 가까이 가도 피하지

않는다. 오히려 가만히 서서 자신을 노리는 포식자에게 당당히 자기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 베짚이는 그런 모습을 취함으로써 자기를 건드리지 말라는 뜻을 전하는 것이다. 또 열대의 호수에 사는 민물고기 ㉡ 시칠리드는 정면에서 보면 마치 귀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기분 상태에 따라 이 곳에 점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면서 색깔이 변한다. 이 부분에 점이 생기면 지금 기분이 안 좋다는 의사를 드러내는 것이다.

모습이나 색깔을 통해 의사를 표현하는 정적인 방법도 있지만 행동을 통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동적인 방법도 있다. 까치와 가까운 새인 ㉢ 유럽산 어치는 머리에 있는 깃털을 얼마나 세우느냐에 따라서 마음 상태가 다르다고 한다. 기분이 아주 좋지 않거나 공격을 하려고 할 때 머리털을 가장 높이 세운다고 한다.

소리를 이용하여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동물들도 있다. 소리를 이용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경보음을 이용하는 것이다. ㉣ 북미산 얼룩다람쥐 무리에는 보초를 서는 개체들이 따로 있다. 이들은 독수리 같은 맹금류를 발견하면 날카로운 소리로 경보음을 내어 동료들의 안전을 책임진다. 그리고 ㉤ 갈고리모양나방 애벌레는 다른 애벌레가 자신의 구역에 침입하면 처음에는 노처럼 생긴 뒷다리로 나뭇잎을 굽어 진동음으로 경고 메시지를 보낸다. 침입자가 더 가까이 접근하면 입으로 나뭇잎을 굽어 짹고 강한 소리를 계속 만들어낸다.

냄새를 통해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는 방법도 있다. 어떤 동물은 먹이가 있는 장소를 알리거나 자신의 영역에 다른 무리가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냄새를 이용하기도 한다. 둥근꼬리 여우원숭이는 다른 놈이 자신의 영역에 들어오면 꼬리를 팔에 비빈 후 흔든다. 그러면 팔에 있는 기관에서 분비된 냄새를 풍기는 물질이 꼬리에 묻어 그 침입자에게 전달된다.

동물들은 색깔이나 소리, 냄새 등을 통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한다. 그러나 동물들이 한 가지 방법만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지는 않는다. 상황에 따라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것들을 혼용한다. 현재까지 알려진 동물의 의사 표현 방법은 양적이나 질적인 면에서 인간의 언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단순하고 초라하지만 동물행동학의 연구 성과가 폭넓게 쌓이면 현재 개발된 '바우링걸'보다 완벽한 번역기가 등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 언어영역



이러한 □ 경직된 초자아로서의 양심은 일종의 기능적 양심으로서, 한 개인으로 하여금 책임 있는 검토나 비판 없이 조직의 이익에 맹목적으로 봉사하게 만든다. 이것은 보편적인 가치에 대한 진정한 인간으로서의 책임감을 침묵하게 만드는 일종의 어용 양심 또는 이데올로기화된 양심의 형태를 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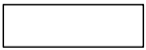
이런 형태의 양심을 지닌 사람들은 집단적 초자아이자 절대적 권위인 조직의 규범과 가치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기 때문에 자신이 외부의 대상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며 자기 것이 아닌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의식하지 못한다. 그리고 그들이 보편적인 정신적 가치를 염두에 두지 않을 때에는, 심지어 최악도 양심에 □ 부합하는 것이라고 여기는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한다. 그래서 □ 그들은 양심에 따라, 조직의 이익을 위하여 남의 고통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마치 법의 지시에 따르듯이' 악행을 행하는 것이다.

진정한 양심은 자신의 행위나 태도에 관련된 도덕적 가치에 대한 깨달음과 인류가 소중하게 여기는 보편적 가치에 대한 의식을 바탕으로 한다. 또한 진정한 양심, 곧 자율적 양심은 외부의 목소리가 아니라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형성된다.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어 받아들인 보편적인 가치가 내면화될 때 진정한 도덕적 책임과 타인에 대한 배려가 자연스럽게 뒤따르게 된다. 문제 상황에 □ 직면했을 때 참된 양심을 지닌 사람은 주체적으로 상황을 검토하고, 그 상황에 대한 도덕적·윤리적 성격을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적절하게 행동한다.

요컨대 올바르게 건설적으로 길러진 양심은 한 인격체를 초자아적 양심의 단계를 넘어서게 해 준다. 이렇게 길러진 자율적인 양심은 주체적으로 받아들인 실천적 가치들을 책임감 있게, 철저하게 따르도록 강제하는 역할을 한다. 자율적인 양심은 내 안에 있는 참된 자아의 음성이며, 삶의 과정에서 쌓은 도덕적 경험의 표현이며,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주변 세계에 대한 관심이다. 에리히 프롬이 말했듯이 양심은 '자아의 영토를 지키는 파수꾼'인 셈이다.

진정한 의미의 양심은, 외부의 권위가 내면화된 권위적 양심과는 분명히 구별되어야 한다. 프루이트가 말한 '초자아'가 이러한 권위적 양심에 해당하는데,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단계에서는 대체로 양심을 이런 형태로 경험하는 정도에 차이가 있지만 권위적 양심은 모두 부모나 학교, 국가, 사회, 교회 등을 통해서 만들어진 제도적 규범이 무비판적으로 □ 수용되면서 만들어진다. 이러한 권위적 혹은 초차아적인 양심은 아이들에게 심층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므로, 그것에만 매여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생각하지 않고 별다른 외적 권위가 아이의 마음속에 자리잡을 것인 만큼 함의 있다... ⑤

성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자의식과 자율성을 키우지 못하면, 나중에는 배우자, 상관, 기업, 종교 단체, 국가 기관 등 다른 권위에 의존하는 인간으로 □ 전락한다. 외부적인 요소에 대한 극단적인 의존성 때문에 과감하게 자율적인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어, 자신이 의존하고 있는 인물 혹은 조직의 입장에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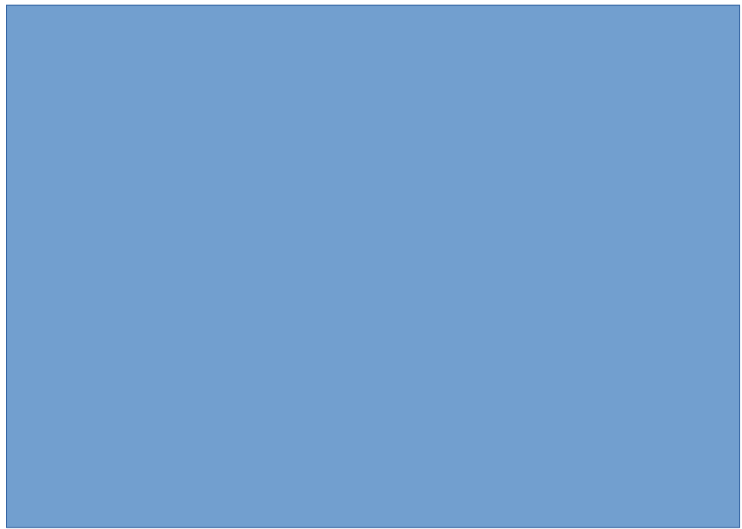




9

# 언어영역

새벽보다 깊은 새벽 ☹️ 섬기에 앉아  
 오늘도 그대를 사랑하는 일보다  
 기다리는 일이 더 행복하였습니다.



[35~3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사회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관점을 지녀야 한다.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관점은 사람들이 맺는 관계에 주목하여 사회 현상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 관점에서는 주로 어떤 개인과 그를 둘러싼 가족, 사회, 국가, 세계 사이에 존재하는 구속성과 영향력, 또는 어떤 개인이 다른 개인이나 집단과 갖게 되는 이해관계나 상호

# 언어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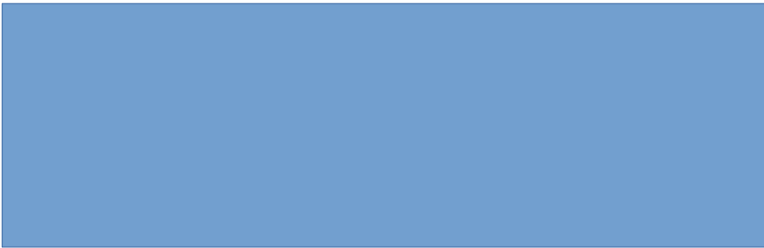
작용에 중점을 두어 사회 현상을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예를 들어, 위계와 차별을 핵심으로 한 유교적 인간 관계가 사회 조직으로 확산되면서 혈연, 지연, 학연 등 사적인 연고를 중시하는 태도로 바뀌어 나타났다는 견해가 있는데, 이때 연고주의의 원인을 유교적 인간 관계의 □ 변질에서 찾았다면, 이는 관계를 중심으로 사회 현상을 분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구조를 중심으로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개인의 의지와 능력에 상관없이 존재하고 작동하는 사회의 체계나 구조에 관심을 둔다. 구조는 사회 전반을 포괄하는 거시적인 성격을 갖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권력, 부, 지식 등이 불균등하게 분배된 상황에서 쉽게 드러난다. 한 개인은 정치인, 관료, 자본가, 학자 등과 형식적으로는 평등한 관계에 있지만, 이들이 집단 혹은 제도로써 독점하는 자원을 이용해 일방적으로 강제하고 억압하는 사회 구조 속에 있다면, 개인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불균형을 운명처럼 받아들인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시민 운동, 노동 운동과 같은 각종 사회 운동을 통해 조직적인 대응 방식을 모색하기도 한다. 운명처럼 받아들인 조직을 결성하여 사회 운동을 벌이든 모두 구조에 관심을 두고 사회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현대 사회는 급속히 도시화, 산업화, 세계화되어 간다. 그 변화 과정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역할에 큰 관심을 갖게 된다. 따라서 □ 사람들은 이 변화의 추세에서 낙오되지 않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며 산다.

사회 변화에 발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사회 현상에 대한 분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변화의 추세를 읽고 현재의 문제를 진단해야 미래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 사회에서 변화를 감안하지 않고 어느 한 시점에서 사람들 사이의 관계나 그들을 둘러싼 구조만을 논하는 것은 많은 한계가 있다. 예를 들면, 정부와 대기업의 유착에 의한 과거의 경제적 지배 구조는 세계화로 인해 자유 경쟁을 중시하는 경제 구조로 변하면서 다국적 기업의 영향력의 증대를 가져왔다. 이처럼 산업화, 도시화, 민주화, 정보화, 세계화 등의 변화는 사회 관계나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그 매개체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어느 한 시점에 정착된 사회 관계나 구조를 분석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역사적 관점에서 그 변화 과정을 중심으로 사회 현상을 분석하면, 좀더 포괄적으로 사회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



[39~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 언어영역

- 김탁환 원작, 손영목 각색, 천둥 소리 -

이이침이 바닥에 부복한다. 도사 두 명도 허균을 앉히며 부복하려 하는데 □ 허균이  
선 채 꼼짝도 않는다.)



! 저자가 무슨 흉악한 짓을 저지르지 어찌 가늠하겠사옵니까? 통촉하시옵소서! 전하!

입니다. 허나, 전하…… 신에게 전하보다 천 배 만 배 더 소중한 것은 저 햇빛은 백성의  
마음입니다. 신은 저 가난하고 불쌍한 백성의 편에 서고  
싶었사옵습니다. 전하…….

어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함께 하면 되지 않느냐? 뭐가 그리 급했느냐?

계읍선 서얼과 천민과 과부와 승려를, 조정의 대신들과 같이 동등하게 대할 수가 있겠사옵니까?  
백성은 죽어 가는데, 저 공리공론만 일삼는 성리학자들을 하루  
아침에 내칠 수가 있겠사옵니까? 전하께선 그럴 수가 없사옵니다.  
대동법 하나를 경기 일원에 시행하는 데 반 백년이  
걸렸고, 서얼의 등용 문제 하나도 선왕의 뜻이라며 물리쳤던  
전하가 아니십니까? 전하께 중요한 것은 왕실의 안위지만,  
백성에게 중요한 것은 천지개벽입니다. 신은 그것을 하고자  
했사옵니다.

구천의 낮이 되더라도 새로운 세상이 오는 그 날을 소망하며 지켜볼 것이옵니다. 신을  
죽여주시옵소서. 전하…….

# 언어영역

[43~46]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단어들은 의미를 중심으로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여기서는 단어의 의미가 종적으로 대치되는 의미의 계열 관계를 중심으로 단어의 유의 관계를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유의 관계는 의미가 같거나 비슷한 둘 이상의 단어가 맺는 의미 관계를 말하며, 그 짝이 되는 말들은 '동의어' 혹은 '유의어'라고 한다. 실제로 의미가 같고 모든 문맥에서 치환이 가능한 '동의어'는 그 수가 매우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유의 관계의 대부분은 개념적 의미의 동일성을 전제로 한 '유의어'를 가리킨다.

동일한 지시 대상을 가리키는 유의어는 다섯 가지 양상으로 대별되는 데 표준어와 방언, 고유어와 외래어, 일반어와 특수어, 긍정어와 부정어, 직접어법과 완곡어법에 따라 유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들이다.

(표준어 : 방언) 국물 : 말국, 옥수수 : 강냉이

(고유어 : 외래어) 이 : 치아, 술 : 약주  
 (일반어 : 특수어) 소금 : 염화나트륨, 반찬 : 부식  
 (긍정어 : 부정어) 흑인 : 까둥이, 절약가 : 노랭이  
 (직접어법 : 완곡어법) 죽다 : 돌아가다, 변소 : 화장실

개념적 의미가 동일한 유의어라 하더라도 구체적 문맥을 고려하면 의미 차이가 나타나기도 한다. 다양한 문맥에서 개념적 의미가 동일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 한정된 문맥에서만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두 단어 간에 의미 차이가 나타난다. 한정된 문맥에서만 개념적 의미가 동일한 단어도 포괄적 의미에서 유의어라 할 수는 있지만, 다양한 문맥에서 그러한 경우와 비교할 때 유의성의 정도가 다르다.

유의 관계를 알아보는 데는 교체 검증, 대립 검증, 배열 검증의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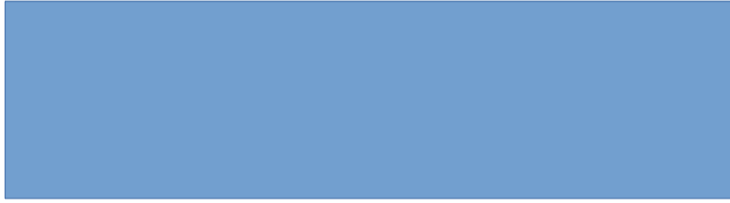
첫째, 문맥 속에서 한 단어를 다른 단어로 바꾸어 보는 교체 검증의 방법을 쓸 수 있다. □ '달리다'와 '뛰다'의 경우, '학교를 향해 달렸다/뛰다'는 동일한 사태를 나타낸다. 하지만 '기차가 달린다/\*뛰다'(\*는 비문임을 표시함.)와 같은 문장을 보면 '기차가 달린다'는 가능하지만 '기차가 뛰다'는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동일한 사태를 나타낸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이들은 한정된 문맥에서만 개념적 의미가 동일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둘째, 대립어를 사용하여 두 단어의 의미 차이를 밝히는 □ 대립 검증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맑다 - 깨끗하다'의 경우, '물, 공기, 시야' 등과의 결합에서 그 경계가 분명하지 않은데, 이들과 대립 관계에 있는 '흐리다 - 더럽다'를 대비시키면 '맑은 물/ 흐린 물', '깨끗한 물/ 더러운 물'에서 보듯이 '흐리다'와 '더럽다'의 거리만큼 '맑다'와 '깨끗하다'에도 의미 차이가 있음이 드러난다. 즉 '흐린 물'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더러운 물'이라고 단정할 수 없듯이 '맑은 물'이라고

반드시 '깨끗한 물'이라고 생각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유의성의 정도가 모호한 단어들을 하나의 계열로 배열하는 배열 검증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실개천-개울- 시내-내-하천-강-대하'에서처럼 관련된 단어들을 하나의 축으로 배열하게 되면 '개울'과 '시내'에도 미세한 의미 차이가 드러난다.

유의어는 동일한 개념 영역에 대해서 서로 다른 형태를 갖고 있으므로 상호간에 경쟁을 하게 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그 경쟁 관계를 해소시키는 방향으로 이들은 변화하게 된다.



# 언어영역

13

[47~51]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사진이란 시간을 정지시킨 기록물이다. 정지된 시간은 카메라의 셔터가 찰칵거리는 찰나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사진 속에 포착된 시간은 과거의 모든 인과 관계를 담고 있다. 우리는 갈비뼈가 앙상하게 드러난 에티오피아 어린이의 사진을 보면서 그 아이가 그동안 얼마나 굶었을까를 생각하고, 전쟁터에 쓰러진 병사의 사진을 보면서는 그 이전에 있었을 참혹한 전쟁의 상황과 병사의 고통을 떠올리게 된다. 이처럼 사진은 과거를 향해 열린 창이며 우리는 그 창을 통해 정지된 시간 이전의 사연들을 들여다본다.

사진은 세계의 이미지를 담은 기록물이다. 모든 초상화가 그렇듯이 사진으로 찍힌 그 시간은 사진이 없어질 때까지 하나의 기호 형태로 저장된다. 또한 인간이 사용하는 모든 기호들처럼 사진도 심리적인 특성을 갖는다. 그리고 그 기호는 영상의 형태를 하고 있기 때문에 □ 상형 문자 시대 이래 처음으로 다시 갖게 된 상형 문자라고도 말한다. 사진의 기호는 사람이 쓰는 언어와는 아주 다르다. 그것은 주어도 서술어도 없이, 단지 하나의 장면과 어떤 이미지들로 구성된 언어인 것이다. 이처럼 사진은 서술적이거나 단편적이지만, 이미지를 통해 전달되는 그 의미는 단편적인 것 이상의 것이다.

미국의 사회파 사진 작가 워커 에반스가 1936년에 찍은 '어린이의 무덤'을 보라. 이 사진이 미국의 대공황 시절의 각박하고 어려운 삶을 기록한 사진의 일부라는 것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 사진은 단순한 한 장의 사진 이상의 것을 생각하게 한다. 흙으로 금방 만들어진 무덤과 무덤 한 가운데 올려진 낡은 그릇은 죽은 어린이와 그 부모의 삶이 결코 풍족하고 편안하지 않았음을 짐작하게 해 준다. 이 경우 사진은 하나의 상징인 것이다. 오래 살아 남는 사진일수록 이러한 상징성이 강하게 들어 있어서, 우리를 깊은 사색에 빠지게 하고 그 사진의 배후로 끌어들이고 있다. 그래서 사진은 우리가 세계와 관계를 맺는 하나의 통로가 된다. 사진은 세계를 이미지로 만들어 기록하기 때문에, 사진을 찍는 사람에게도 그것을 보는 사람에게도 사진은 그 사람과 세계 사이에 어떤 관계를 만들어 준다.

사람들은 흔히 사진이 세계를 있는 그대로 담아낸 것이고 사진을 찍는 것은 사건에 개입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는 착각을 하곤 하지만, 대부분의 사진에는 찍는 사람이나 찍히는 사람의 의도가 개입되어 있다. 그 의도는 나중에 사진을 보는 사람들-찍히는 사람과 찍는 사람을 포함해서- 이 사진을 통해서 어떤 이미지를 느끼고 어떤 사색을 하고 어떤 평가를 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과 관계가 깊다. 사진을 찍는 일 자체가 자신을 포함한 세계에 대하여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이 되는 것이다. 또한 보는 이에게 있어서도 사진은 □ 어떤 대상의 대체물의 기능을 하거나 적어도 사색을 통해 그 대상과 간접적으로 만나게 함으로써, 세계와 관계를 맺게 한다. 사춘기의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연예인의 사진을 모으거나 여행자들이 명승지의 사진을 담은 그림 엽서를 모으는 일도, 결국은 사진을 대상의 대체물로 삼거나 사진을 통해 꿈꾸고 상상하고 평가하면서

세계와 관계를 맺는 하나의 형태라 할 수 있는 것이다.



# 언어영역

주생이 다 쓴 뒤에, 배도는 마음과 피로 봉하듯이 그 글을 정성껏 봉해서 허리춤 속에 넣었다. 이날 밤 시를 읊으며 두 사람이 사랑을 나누니, 비록 김생과 취취나 위량과 빙빙의 사랑이라도 여기에 미치지 못할 정도였다.

다음날 주생이 비로소 어젯밤에 들었던 사람 소리와 말 울음소리에 대해서 묻자, 배도가 말했다.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붉은 대문을 단 집이 물가를 마주 바라보고 서 있는데, 이는 바로 옛날 승상(??)이었던 노모(아?)의택입니다. 승상은 이미 죽고, 부인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아들 한명과 딸 한 명만을 데리고 외롭게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매일 춤과 노래로 소일하고 있는데, 어젯밤에도 말을 보내어 저를 불렀으나 제가 낭군 때문에 병을 핑계 대고 거절했던 것입니다."

(나) 주생은 몸을 숨긴 채 다가가서 숨을 죽이고 엿보았다. 금빛 병풍과 채색 담요가 황홀하여 눈이 부시었다. 부인은 붉은 비단 적삼을 입고 백옥(??) 방석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나이는 50세 정도 되어 보였으나 지긋이 한 쪽 눈을 감고 돌아보는 태도에는 아직 예전의 어여쁜 모습이 남아 있었다. 꽃다운 나이의 소녀가 부인 옆에 앉아 있었는데, 구름처럼 고운 머릿결에는 푸른빛이 맺혀 있고 아리따운 뺨에는 붉은빛이 어리어 있었다. 밝은 눈동자로 살짝 흘겨보는 모습은 흐르는 물결에 비친 가을 햇살 같았으며, 어여쁨을 자아내는 아름다운 미소는 봄꽃이 새벽 이슬을 머금은 듯 했다. 배도가 그 사이에 앉아 있었는데, 배도는 그 소녀에 비하면 봉황에 섞인 갈가마귀나 올빼미요, 옥구슬에 섞인 모래나 자갈일 뿐이었다. 그 소녀를 본 주생은 낮이 구름 밖으로 날아가고 마음이 공중에 뜬 듯이 황홀하였다. 그래서 몇 번이나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며 달려 들어갈 뻔했다.

(다) 주생은 한번 선화를 본 후부터는 배도를 향한 마음이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그래서 배도와 술잔을 주고받는 사이에도 애써 웃고 기뻐할 뿐, 마음은 온통 선화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루는 승상 부인이 아들 국영을 불러 놓고 말했다.

"네 나이가 열두 살인데도 아직 글을 배우지 않고 있으니, 훗날 어른이 되어서 어떻게 자립할 수 있겠느냐? 배 낭자의 남편인 주생은 학문이 뛰어난 선비라고 들었다. 네가 가서 그에게 배움을 청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중략>

이때부터 주생은 승상의 집으로 옮겨가 더부살이를 했다. 그러나 낮에는 국영과 함께 생활을 하고, 밤이 되더라도 문빛장이 굳게 잠기어 있어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다. 주생은 10여 일이 넘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민하다가, 마침내 자신에게 일렀다.

"처음 내가 이곳에 온 것은 본래 선화를 만나기 위함이었다. 이제 향기로운 봄도 이미 끝나 버렸는데 아직도 만나지 못하고 있으니, 사람의 수명이 얼마나 된다고 황하가 맑아지기를 기다리겠는가? 차라리 당돌하게 ① 달을 넘어 가는 것이 더 나으리라. 일이 이루어지면 귀하게 될 것이요, 이루어지지 않으면 벌을 받아 죽으면 그만이다."

마침 그날 밤 달이 뜨지 않았다. 주생은 몇 겹으로 된 담을 넘어

[52~55]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배도는 눈물을 흘리고 정색을 하며 말했다.  
"시경에 '아낙네 잘못 없는데, 사내는 달리 대하네.'라고 이르지 않았습니까? 낭군은 이익과 관소옥의 사연을 알지 않습니까? 낭군이 만약 저를 멀리 버리시지 않을 것이라면, 원컨대 맹세의 글을 써 주십시오."  
이어서 배도가 고운 명주 한 폭을 꺼내어 주자, 주생은 즉시 붓을 휘갈겨 말했다.  
"푸른 산이 늙지 않고 푸른 물이 내내 흐르듯이 내 마음 변치 않으리. 그대가 내 말을 믿지 않는다면, 하늘에 뜬 밝은 달에 맹세하리라."

# 언어영역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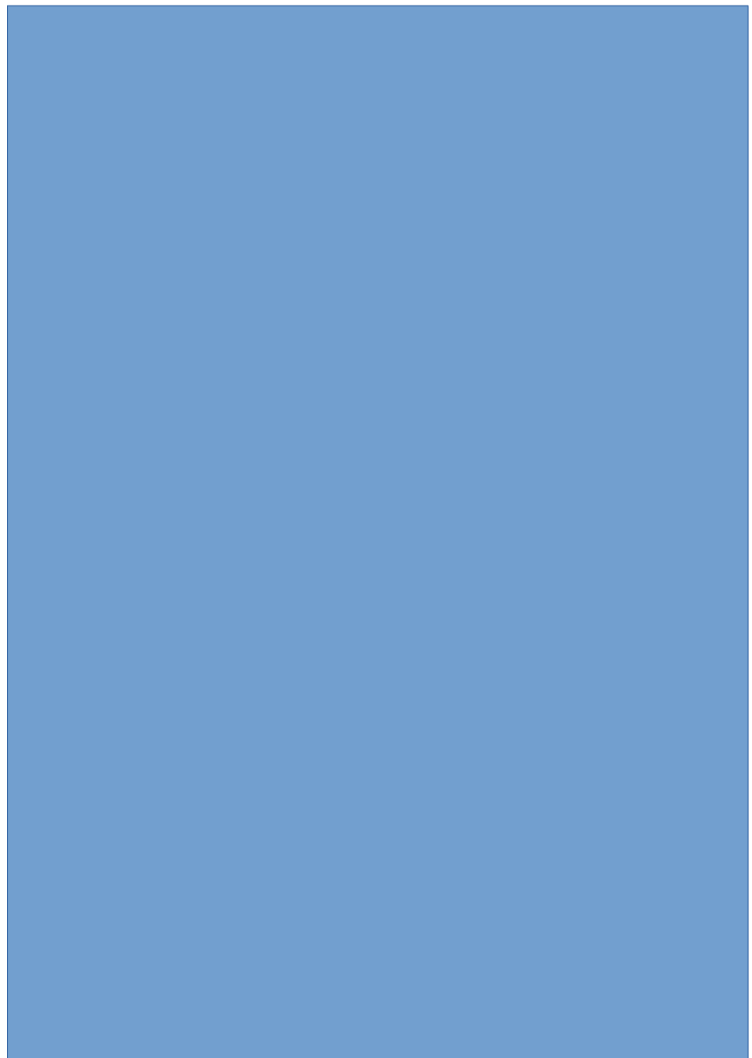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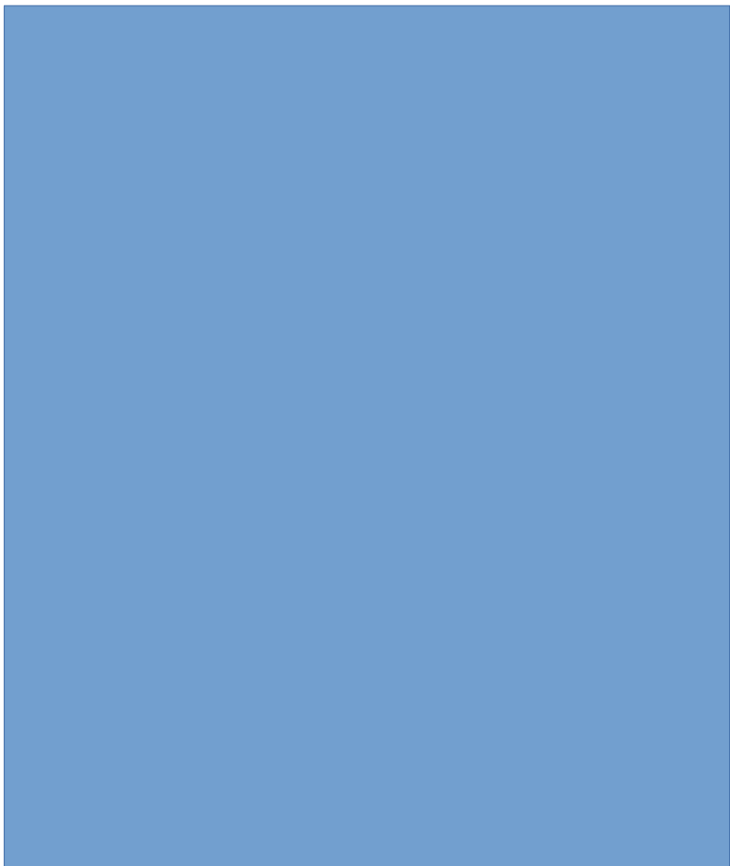
비로소 선화의 처소에 이르렀는데, 그곳에는 굽이진 기둥과 돌아드는 복도마다 주렴과 장막(?)이 겹겹이 드리워져 있었다. 주생은 한참 동안 주변을 자세히 살펴보았으나 인적이라고는 전혀 없었다. 다만 ⊖ 주렴 뒤에서 선화가 촛불을 밝히고 악곡(?♩)을 타고 있었다. 주생은 기둥 사이에 엮드려 선화가 타는 악곡 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었다. 선화는 악곡을 다 연주하고 나서 작은 소리로 소자침의 <하신랑(?♠)>이라는 사곡(?♩)을 읊었다.

안타깝게도 요대에서 노니는 꿈 깨뜨리네.

아아, 대밭을 스치는 바람이런가.

- 권필, 주생전(???) -

발표한 의견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점]



# 언어영역

[56~6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기술은 그 내부적인 발전 경로를 이미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어떤 특정한 기술(혹은 인공물)이 출현하는 것은 '필연적'인 결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러한 통념을 약간 다르게 표현하자면, 기술의 발전 경로는 이전의 인공물보다 '기술적으로 보다 우수한' 인공물들이 차례차례 등장하는, 인공물들의 연쇄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기술의 발전 경로가 '단일한' 것으로 보고, 따라서 어떤 특정한 기능을 갖는 인공물을 만들어 내는 데 있어서 '유일하게 가장 좋은' 설계 방식이나 생산 방식이 있을 수 있다고 가정한다. 이와 같은 생각을 종합하면 기술의 발전은 결코 사회적 힘이 □ 가로막을 수 없는 것일 뿐 아니라 단일한 경로를 따르는 것이므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이미 정해져 있는 기술의 발전 경로를 열심히 추적해 가는 것밖에 남지 않게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러나 다양한 사례 연구에 의하면 어떤 특정 기술이나 인공물을 만들어 낼 때, 그것이 특정한 형태가 되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그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엔지니어, 자본가, 소비자, 은행, 정부 등의 이해관계나 가치체계가 밝혀졌다. 이렇게 보면 기술은 사회적으로 형성된 것이며, 이미 그 속에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고 있는 셈이 된다. 뿐만 아니라 복수의 기술이 서로 경쟁하여 그 중 하나가 사회에서 주도권을 □ 잡는 과정을 분석해 본 결과,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기술적 우수성이나 사회적 유용성이 아닌, 관련된 사회집단들의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결국 현재에 이르는 기술 발전의 궤적은 결코 필연적이고 단일한 것이 아니었으며, '다르게' 될 수도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나) 기술의 발전이 사회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이다. 하지만 기술과 사회의 관계에 대한 통념은 기술이 사회에 영향을 미친다는 정도를 넘어 그것이 사회의 형태와 변화 방향을 '결정'한다는 견해로까지 □ 나아가는 경우가 많다. 새로운 동력 기술이 자본주의를 낳았다는 주장, 새로운 정보 기술이 과거의 산업사회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회를 낳는다는 주장 등이 그 사례가 될 것이다. 실제로 우리의 일상에서는 새로운 기술의 도입으로 사회적 관계와 행동 양식이 바뀌어 나가는 경우가 많기에 이러한 주장은 상당히 그럴듯하게 들린다.

그러나 기술이 사회적인 영향력을 갖는다는 것과 기술이 사회를 결정한다는 주장은 분명히 구분되어야 한다. '기술이 사회를 결정한다'는 주장의 근거에는 기술을 스스로 진화하는 실체로 □ 여기는 사고가 놓여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기술은 결코 독자적으로 발전하는 실체가 아니며 '사회적인 영향력 속에서 구성되는' 존재이다. 물론 특정한 기술의 발전 궤적을 들여다보면, 그것이 사회로부터 영향을 받기보다는 사회에 거의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들도 있다. 핵 발전 기술처럼 이미 우리 사회 속에 깊숙이 □ 자리잡은 거대 기술시스템들은 사회 구성원들의 통제를 벗어난 자율적 실체로 보이지 않는가? 이러한 지적은 얼핏 보기에는 타당한 것 같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기술이 사회로부터 벗어나 완전히 자율적인 실체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거대 기술시스템을 지탱하는 요소 역시 궁극적으로는 사회적인 이해관계의 총체임에 분명하기 때문이다.



# 언어영역

17

문제? [3 점]

